

Workshop 2	발표일시(한국시간): 2021.12.27(월) 18:00~19:30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워크숍 2 (최대인원 30명)

지화 접기 워크숍

**Anisha Dhungana (Tenzin Lekzom), "Paper Flower Origami Workshop"**

아니샤 둔가나(텐진 렉쎌)Anisha Dhungana(Tenzin Lekzom)/번역 안미경

### 요약문

본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지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. 종이꽃 만들기를 배움으로써, 참가자들은 수행의 일반적 경계를 넘어, 자비심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창의력, 예술 및 숙련된 방편들을 배울 수 있다.

예술과 정신수양 사이에는 깊은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. 예술은 또한 윤리, 지혜, 연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. 참가자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종이꽃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동안 불교의 개념이 워크숍에 잘 짜여져 있을 것이다. 꽃의 무상함, 선행과 악행의 인과(씨앗과 꽃의 은유 사용), 마음에서 어떻게 개념들(아름다움과 추함, 유쾌함과 불쾌함과 같은)이 생겨나는지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.

종이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로도 쓰일 수 있다. 종이꽃은 생화에 비해 오래 가기 때문에 지화 공양을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. 공양을 위해 생화를 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. 우리는 손수 만든 아름다운 꽃을 친구나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잠시나마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어서 종이꽃은 보시 수행에도 활용될 수 있다.

연꽃은 가장 깊고 단단한 진흙에서 아름답게 피어난다. - 불교 격언

발표자 약력:

아니샤 둔가나Anisha Dhungana: 호주의 불교 수행자. 랑그리 탕파센터(Langri Tangpa Center) 와 첸레지그 연구소(Chenrezig Institut)를 포함한 다양한 FPMT(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Mahayana Tradition) 센터에서 연구 중이다. 지난 한 해 동안 다람살라의 잠양 출링 인스티튜트(Jamyang Choling Institute)에서 불교철학, 토론, 티벳 언어를 공부했다. 수년간 도시공학자로서 사회적 선행과 지속가능한 일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해왔다. 작년부터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어(승)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.